

2024년 12월 24일 공보 2024-12-28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12월 26일(목)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25일(수)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2024년 12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음

<붙임>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1부. 끝.

문 의 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김병국 (02-759-4461) 금융기획팀 팀장 이창기 (02-759-4491)
조 사 국 조사총괄팀 팀장 김대용 (02-759-4181)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팀장 임광규 (02-750-6834)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팀장 박성진 (02-759-4777)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팀장 박준홍 (02-750-6635)
국 제 국 국제총괄팀 팀장 김상훈 (02-759-5737)
공 보 관 : Tel. (02) 759-4135, 4199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24. 12.

한 국 은 행

한국은행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공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한 국 은 행
총재 이 창 용

<한국은행법>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차 례

<요 약>

I. 기준금리 운용	1
II. 금융안정 도모	2
III.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3
IV.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4
V.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5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요약 >

- ◆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추어 인하속도를 유연하게 결정
- ◆ 금융·외환시장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점검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 ◆ 금융안정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검토
- ◆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선, 공개시장운영 원칙 수립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
- ◆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CBDC 도입 기반 마련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

I. 기준금리 운용

-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인하**
 - 물가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된 점을 고려
 -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거시건전성정책이 원활히 작동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인하의 영향 등을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

—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 등이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

- 향후 금리인하 속도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과 그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결정

Ⅱ. 금융안정 도모

-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여 시장 불안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

— 현재 시행중인 시장안정화 조치*는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

* 비정례 RP매입 실시,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외화유동성 공급 등

- 공동검사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부동산PF 부실 등을 다각도로 분석
-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안정 등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정책공조를 지속

- 국내 외환부문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추가 시행

- 필요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검토

- 대외충격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금융안정망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만기도래 통화스왑 연장도 추진

 - * 한국은 BIS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원회(CGFS, 2023.11월~2026.10월) 및 EMEAP 임원회의 의장국(2024.하반기)

- 한편, 외국 금융기관(RFI)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안착 노력 지속

 - * 전자거래(eFX) 활용도 제고,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완화 등

-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경제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정책적 대응 노력을 지속

- 기후리스크 모형 고도화*를 통해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고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

 - * 기후 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 최적 탄소가격경로 등을 함께 추정하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개발

- 외화자산 운용시 그린본드 매입,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 등 ESG 요소를 자산운용 프로세스에 적극 반영

Ⅲ.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 금융안정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을 한국은행 대출의 적격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개발,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추진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필요시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을 감안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유지하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장기 개선방안을 검토

IV.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내외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 금통위원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금리전망의 개선도 추진

* 2024년중 금통위원 기자간담회(3회 실시), 주요 보고서 주관위원 메시지 공개(3회), 대외 세미나 발표(23회) 등을 실시

- 경제전망의 정도를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에 대한 설명도 강화

—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을 고려하여 선행지표 개발, 미시데이터 확충 등을 통해 경제상황 모니터링을 강화

— 특히 경제전망 오차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연 1회, 매년 11월)

- 아울러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경제전망」 등 주요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 및 영문* 콘텐츠를 제공을 확대

* 주요 보고서의 영문 게시 시차도 단축(2개월 내외 → 1개월 내외)

-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에서의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제고

* KOFR-OIS(KOFR를 준거금리로 하는 이자율 스왑)시장 활성화, KOFR FRN(변동금리채권) 발행 확대 등

- 공개시장운영 원칙을 정리하고 대외 공표를 추진*

* 대상기관 확대 선정(2024.7월)의 효과도 점검

□ 대내외 정책여건 및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구·분석을 강화

-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 및 통화정책 파급경로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정책효과 제고 방안을 연구

* 인플레이션 동학,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파급영향, 중립금리 수준 등

- 저출생·고령화, AI·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고려한 중장기 통화정책 운용방안을 모색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금리 추이 분석 및 전망」, 「Transforming the Future: The Impact of AI in Korea」 등

V.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성과 국가간 상호운영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

-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추진하고, G20 국가간 지급 서비스 개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 국내 금융권 등과 제도 개선을 진행

* ISO 20022 도입은 2026년 완료 예정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기반 마련 및 대내외 협력 강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참가은행 등과 함께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

* 일반 국민들이 예금 토큰 및 이에 기반한 디지털 바우처 등을 물품 구매 등에 직접 사용

- BIS 및 주요국과 공동으로 아고라 프로젝트 등 토큰화 기술을 활용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연구를 진행

-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스테이블 코인 등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역할을 강화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7.19.일 시행)에 명시된 자료제출 요구권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2단계 입법논의에 적극 참가

(붙임)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다.
 - **(중기적 운영 시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신용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물가안정목표는 일시적·불규칙적 요인에 따른 물가변동, 통화신용정책의 과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 **(미래지향적 운영)**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되,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착 정도,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신축적 운영)**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통화신용정책 운영시 금융안정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다.
 - **(금융시장 안정 노력)** 금융불안 발생시 통화정책의 과급경로가 제약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금융불균형 유의)** 부채 누증 등 지속적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이에 유의한다.
 -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공표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과도한 누적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